

나의 몸,나의 선택

고린도전서 6:12-20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세번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친구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어떤 것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그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영국의 코미디언이자 팟캐스터이며 스스로 쾌락주의자라고 밝힌 러셀 브랜드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아름답고 신성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고린도는 두 항구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도시였고, 실제로는 에로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동일시될 정도였습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신약학자인 고든 피(Gordon Fee)는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를 합쳐 놓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Fee, 『고린도전서』, p.3).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가 성(性)에 집착하는 첫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캐나다 문화와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인류의 계몽이나 도덕적 진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 없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에서 늘 그 래왔던 상태로의 퇴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 혁명은 초기 기독교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던 로마 제국, 특히 고린도와 로마 같은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남성들이 억압받게 되었고, 여성들은 신실하고 이성적인 일부일처 관계를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몸이 아름답고 신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북미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진리는 그분에 의해 정의되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을 진리의 원천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현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설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둡니다.

진정성은 이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일처의 이성 간 결혼과 가족 제도는 억압적인 구조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화는 이성 간의 문란함에서 시작해 이제는 트랜스젠더 이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적 욕망에 충실해야 한다.” 그 욕망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남성’이 무엇인지, ‘여성’이 무엇인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는 대신,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집착합니다.

이런 정체성과 지향은 이성이나 본성, 더 나아가 신적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감정에 기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했던 “남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자명한 것들조차도 질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적으로 정의된 자아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절대적인 인정과 수용을 요구합니다.

(참고: 칼 트루먼, 『이상한 신세계: 사상가와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재정의 하고 성혁명을 촉발한 방법』)

또한, 우리가 “내 몸, 내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호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내 권리이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며, 낙태를 하든, 성을 바꾸든, 안락사를 선택하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슬라이드 참고):

오늘날에는 개인적 자아(마음, 의지, 감정 등 고유한 정체성)와 물리적 신체(음식, 성관계 등)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육체를 어떻게 다루든 그것은 개인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문화는 다시 고린도로 돌아간 셈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라는 표현은, 고린도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슬로건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내 자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같은 그리스 도시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강요나 방해나 강제에 굴하지 않고, 선택이 방해받지 않으며, 욕망이 이루어지고, 혐오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이다.”

음행, 매춘, 동성애, 소아성애,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육체로 하는 일은 개인적인 자아(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고, 그렇기에 육체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에 닿지 않는 일은 기독교인에게 무관한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13절 전반부에서는 또 다른 고린도식 구호가 등장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혹시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구절이 여기 왜 등장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은 세속적 구호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용했습니다.

“배가 있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함이며, 배고픔은 식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함이며, 성적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즉,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내부 대화이며, 동시에 성경이 제시하는 성(性)의 가치와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3절 후반부에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주장을 제시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porneia)이며, 영어 단어 “pornography(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포르네이아는 모든 일대일 이성 간 결혼 이외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간음, 동성애, 간통, 근친상간, 소아성애, 포르노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육체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은 너희 육체를 위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 욕망이 아닌,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합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며,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이자 저자인 C. 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이며, 그것도 매우 가혹한 주인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심지어 동물이나 종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적 자유는 단지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자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위한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자유는 쾌락을 쫓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자기 이익, 자기 결정권, 자기 만족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할수록,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성(性)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결국 우리의 영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의 목적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구원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부활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5:20 참조).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이며,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15:42-49)

1.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a. 너희의 몸은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로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5:30-34).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부도덕함은 부활의 삶과 전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의 문화처럼, 일부 고린도 교인들 또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매춘부를 이용하면서, 그것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2.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b. 너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그분에게서 떼어내어,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몸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스타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라’고 부르십니다.” (Styler, p. 186)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춘부와 연합은 이 영적 현실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몸을 맡기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합니다: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그저 순간적인 가벼운 성적 결합일 뿐이야. 한 사람은 성적 해소가 필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적 결합은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동의해서 즐기는 단순한 육체적 경험, 예를 들어 함께 하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가볍고 즐거운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비용이 저렴할 뿐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성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쾌락과 어찌면 감정적 연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 관계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즉 연령, 동의 여부, 상대의 성별, 파트너 수, 혈연관계 여부 등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근거로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도.”

여기서 ‘한 몸’은 성관계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두 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전체를 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 관계는 상대를 하나로 묶어 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매춘부와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은 ‘한 몸’이 되어 그녀와 연합된 것입니다.

영국 작가 루이스 페리(Louise Perry)는 《성혁명에 반대한다(A Case Against the Sexual Revolution)》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로서, 성숙함이란 여러 파트너와 가벼운 성 관계를 맺고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던 여성들을 돕다 보니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황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스 페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제자로서 이 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결론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세우려면 이성애적이고, 일부일처제이며, 오래 지속되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혁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관계를 즐겁게 만드는 모든 요소—육체적, 감정적, 호르몬적, 영적 요소—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도전을 함께 이겨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독점적이고 평생 지속되는 언약 관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32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관계는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완성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즉 이 땅에 계신 그분의 몸을 사랑하는 데에서 발견됩니다. 성관계는 또 다른 현실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신비롭고, 의미 있고, 훌륭하며 초월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결합은 결혼 안에서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예수님께(고린도전서 6:15)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죄(18절; 잠언 6:26, 32절)입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성적 부도덕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하여 다른 신들로 향하게 만듭니다.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는 항상 함께 갑니다. 이 둘은 인생을 왜곡시키고,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문화에서는 폭력도 함께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성적 부도덕은 사람들의 대상화, 학대, 파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무해한 쾌락에만 머무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술 취하거나 폭식하는 것도 몸에 대한 죄이지만, 술과 한 몸이 되거나 음식과 한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춘부와의 성적 결합은 특별히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침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당신의 연합을 만드시고, 당신의 몸을 그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3.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c.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적 부도덕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는 많은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순결을 요구하는 건 알지만, 내 욕망을 채워야 해요.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바울은 혼외정사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직 매춘만 문제 삼았어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 결혼할 계획이에요.”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배우자와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실 리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19b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은 고린도 노예시장 언어에서 직접 유래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노예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으로 사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4.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d.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값으로 사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노예였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의 몸, 나의 선택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답게 살겠다”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따르라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세 살 아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적 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여러분은 몸과 영혼 모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 순결의 삶을 위한 기초입니다. 분명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20b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